

개량신약기술(4)

평균 10 ~ 15년의 신약개발기간과 약 5000억 ~ 1조원의 신약개발비용 절감을 위하여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기존 신약에 대한 적극적 마케팅을 통한 판매 극대화를 진행 중에 있으며, 특허권 만료 후 치열한 가격 경쟁에 따른 이윤감소를 막기 위하여 관련 특허 및 제품의 독점 판매기간 연장을 위한 다각도의 후속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실제로 프로작(Prozac)은 특허만료 3개월 후 판매량이 50% 감소하였고, 글루코파지(Glucophage)는 6개월 동안 90% 감소하였다.

이미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는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자사의 제품 뿐만 아니라 특허만료 예정기간이 도래하고 있는 타사의 블록버스터 약품에 대한 개량기술 개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어 향후 치열한 경쟁이 예상

된다.

다국적 제약회사에 비해 열세에 놓여있는 제네릭 제약회사들과 국내 제약 업체들도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강구하여, 기존 의약품의 단점을 개선한 개량신약 개발 경쟁에 합류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개량신약으로 분류된 아이템은 평균 2.2년의 기간과 11억원의 비용으로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매우 경제적이며, 개발기술의 기술 수출 가능성이 크고, 국내 시장에서 블록버스터 반열에 오를 수 있는 확률도 높아 매출 효과도 뛰어나다.

국내의 기업 규모로 볼 때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으므로 무엇보다도 연구개발에 대한 인식 제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